

# 영광 대표 관광지 불갑사지구 나만의 'e-모빌리티'로 즐긴다

### 수변공원까지 왕복구간 7.3km 시험주행 마쳐 군,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스마트관광지 조성

개인용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를 타고 영광 대표 관광지 불갑사지구를 탐방하는 시대가 열린다.

영광군은 지난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 구간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퍼스널 e-모빌리티(PM)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PM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e-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주행노선 개발과 주행 안전성 검토를 위해 최근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7.3km 구간에서 PM 시험주행을 실시했다.

PM 주행도로는 불갑천 상류 하천 제방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따라 만들어진다.

이번 시험주행 결과에 따라 제방도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도로 주행 방향, 도로 횡단구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영광군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철 구간에 대해선 설계시 면밀히 검토하고 앞서 수립한 'e-모빌리티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PM 운영방식은 영광군 지역 또는 위탁 운영 방안을 놓고 효율성을 따져 결정할 예정이다. 위탁운영 방식으로 결론 날 경우 기반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험형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이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7.3km 구간에 개인용 e모빌리티(PM) 주행도로 개설을 위해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완도군, 9월 해양치유식품 체력보강에 좋은 '우럭' 선정

완도군이 9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조피불락(우럭)'을 선정했다. '조피불락'은 썩셈이뿔 양불락과에 속하며, 완도에서 대량으로 양식되고 있다. 주로 '우럭'이라 불린다.

우럭은 비타민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필수 지방산과 철분, 칼륨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다.

특히 황황아미노산 함량이 다른 어류보다 높아 간 해독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영양도 만점이지만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우럭은 회뿐 아니라 매운탕, 탕수육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생선이다.

완도군에서는 우럭을 해풍에 반건조해 판매한다. 반건조해 꾸들꾸들 마른 우럭에 쌀뜨물과 무를 넣고 끓인 뒤 새우젓으로 간을 해 다진 마늘, 대파, 고추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 우럭찜국은 해장으로도 으뜸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해경, 신안파출소 개소...6개 섬 1120km<sup>2</sup> 해역 관할

### 신안 우이·비금·암태도 등 해양사고 대응력 크게 향상

목포해양경찰서 신안파출소가 지난 1일 암태면 남강선착장에 개소, 정식 출범했다.

신안파출소는 신안 우이·암태·비금·도초(일명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안해역 약 1120.8km<sup>2</sup>를 관할한다.

항·포구 71곳, 대형신고소 13곳, 지역주민 4651세대 9380여명의 안전과 해양종사자(2619명), 어선·다중이용 선박(800여척)의 안전관리를 맡는다.

신안파출소에는 16명 경찰관이 3조 2교대로 근무한다.

지난해 4월 전사대교 개통 이후 신안 섬지역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섬지역 해양안전과 치안활동을 위한 해양경찰 파출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3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신안·영암)은 신안파출소 신설을 요구했고, 이에



목포해양경찰서 신안파출소가 신안군 암태면 남강선착장에 문을 열고 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대해 해양경찰청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4월부터 파출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시작해 최근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신안파출소가 있는 암태 남강선착장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연안·내해 수역의 중간 교두보로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해상 물류, 여객 운송 기능이 남강선착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상교통·해양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지난 31일 해남군 송지면 어란수협에서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어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해법 찾자"...해남군, 어민간담회

해남군이 만호해역(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에 나섰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지난 31일 송지면 어란수협에서 간담회를 열고 만호해역을 생계 터전으로 이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곡성군·의회·수협과 어민 대표 7명이 참석했다.

김양식 채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남군 어민들은 두차례에 걸친 전남도청 앞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만호해역 어업권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어민들은 1982년부터 목숨을 담보로 만호어장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분쟁 시 바다의 상단부는 진도가, 하단부는 해남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1년 전남도가 분쟁종식을 위해 1370ha의 면허를 진도군에 추가로 승인했는데도

분쟁이 재발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만호해역 이용이 차단될 경우 어민 생계 유지 불가능 물론 지역경제 등 지역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면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만호해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양식할 수 있도록 어업권 보장을 호소했다.

명현관 군수는 "만호해역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군과 의회, 수협, 어민들이 앞으로도 적극 협의회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호해역 관련 소송은 해남지원에서 지난 달 12일 3차 변론을 마쳤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안은 도출되지 못한 채 오는 21일 4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약산도 앞 해상 암초에 등대 설치...조업 어선 길잡이 역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완도군 약산면 인근 해역 간출암에 항로표지시설인 등대(등표·사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간출암(썰물 때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바위)은 만조와 농무시 약산면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이 등대는 총사업비 4억3000만원을 들여 직경 4.5m, 높이 12.8m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됐다.

약산면 북쪽 해상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15km 떨어진 곳에서도 등대의 불빛을 흰히 볼 수 있어 안전항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식 목포해수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서남해 주요 항로에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b>매매가 : 48억</b>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b>매매가 : 61억</b>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b>매매가 : 32억</b>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b></p>	<p><b>공장</b>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b>감정가 : 5,106,825,160원</b> <b>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b></p> <p><b>공장</b>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b>감정가 : 5,994,297,460원</b> <b>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b></p> <p><b>공장</b>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b>감정가 : 1,892,743,280원</b> <b>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b></p> <p style="text-align: center;"><b>"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b></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